

# 화순군, 국가면역치료플랫폼 공모 선정

###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세대 백신, 면역치료 산업 선도 발판 마련

화순군(군수 구중근)이 면역치료 국가 컨트롤타워를 담당할 '국가면역치료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1일 구중근 화순군수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과 함께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국가면역치료혁신플랫폼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남대학교의과대학(화순전남대병원)이 주관, 운영할 국가면역치료혁신플랫폼은 면역치료제 연구개발, 전임상·임상시험, 제품화까지 면역치료제 개발의 전

주기를 원스톱 지원하는 면역치료 국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국가면역치료혁신플랫폼 구축 사업에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사업비 460억(국비 230·지방비 230) 원을 투입되며, 화순백신산업특구 내 화순전남대병원 인근에 2021년까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다.

면역치료 전문가 70여명과 국내 유수의 대학교·기업·종합병원 등 17개 기관이 참여한다.

전남대와 GIST, 포스텍, 화순전남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주)박셀바이오 등 국

내 최고의 면역치료 전문 기관·기업 등 산·학·연·병·관의 효율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오픈이노베이션 방식으로 추진된다.

항암 면역치료 세계시장은 암 치료 세계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16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면역치료혁신플랫폼을 구축해 난치성 질환인 암과 치매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면역치료 원천기술 개발로 고가의 면역항암제를 국산화하고 면역치료 분야 거점 기반을 구축해 글로벌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화순군은 이번 사업으로 면역치료 연관 기업 30개사 유치, 1천1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항암면역치료제 국산화와 신약 개

발 등에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생물의약품벨트 조성 사업의 핵심 기관인 국가면역치료혁신플랫폼을 유치함에 따라 산업벨트 조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선 7기 화순군과 전남도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인 화순·나주·장흥 생물의약품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화순군은 국가면역치료혁신플랫폼 구축을 포함해 △항암 바이러스백터 지원센터 구축(290억) △백신전문 기술인력 양성 사업(200억) △스마트 임상지원센터 구축(125억) △노화면역헬스 인증센터 구축(120억)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180억) 사업을 단계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화순=남호경 기자 hknam@

# 나주사랑상품권 판매고 100억원 '돌파'

지난 1일 나주시에 따르면 농어민 공익수당 등 정책지원금을 제외한 나주사랑상품권 일반 판매 누적 금액이 지난 5월 28일자로 1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9년 한 해 누적 판매액 41억5천만원을 단 5개월 만에 2.4배 이상 경신함과 동시에 당초 목표했던 올해 판매액 70억원을 1.4배 초과하는 등 쾌조의 판매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침체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상품권 구매 동참과 지난 3월 23일부터 실시한 구매할인율 한시적 상향(8→10%)에 따른 이용률 증가 덕분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4월부터 시작된 나주시

산한 전 공직자의 상품권 구매운동, 나주경찰서·동신대학교·한국농식품수산물유통공사·전력거래소·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유관·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품권 구매·이용 동참 릴레이로 거듭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전남형 긴급재난지원금, 농어민 공익수당을 비롯한 278억900만원 규모의 코로나19 각종 정책지원금을 더하면 올해 들어 상품권 유통금액은 총 379억원에 달한다. 나주시 관내 상품권 가맹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나주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나주=김동철 기자 dongkk@

# 담양군,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사업 모집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오는 7월 10일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2% 금리로, 농업 창업은 세대당 최대 3억원, 주택구입은 세대당 최대 7천500만 원이며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이차 지원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인 자,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으로 전입한지 5년 미만인 귀농인과 담양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 예정이고,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다.

올해 7월부터는 농촌 지역에서 1년 이

상 거주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도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농업창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나 농업 외 타산업 분야의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생산물을 활용한 서비스, 체험, 판매에 해당되는 사업 등록은 허용)은 지원할 수 없다.

접수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받으며, 내달 22일 귀농귀촌 활성화위원회 심층 면접평가를 실시해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담양=강종연 기자 jilbest1@

# 영광, 귀농귀촌 희망자 현장체험 교육 실시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달 28일부터 1박 2일간 도시지역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광에서 귀농귀촌 현장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귀농산어촌 현장체험'은 전남 귀농산어촌 종합지원 서울센터와 영광군의 주관으로 서울, 경기도 지역 도시민 중 23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지역 목석과 귀농귀촌 성공 노하우를 듣고자 추진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영광군의 선배 귀농귀촌인 농장을 방문해 영농정착 현장을 탐방하고 그들의 성공 노하우를 들어봄으로써 귀농귀촌에 대한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영광군 지역소개 및 귀농귀촌 관련 지원정책 안내와 모량면의 농촌사회복지공동체 여민동락 권혁범 센

터장의 시골 정착과정 특강을 통해 귀농귀촌 인생의 밑그림을 영광에 그릴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현장체험 교육 참가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손님이 조심스러운 상황에서도 오랜만에 만난 식구처럼 반갑게 반겨주는 선배 귀농인과 영광군 관계자들에게 따듯함을 느끼고 제2의 인생을 여기서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이번 귀농산어촌 현장체험 교육은 영광군에서 정착한 선배 귀농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려주어 큰 의미가 있었고 도시민들의 최종 종착지로 영광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영광=김진 기자 jin780617@



지난 2018년 6월 첫 번째 출렁다리(옐로우 출렁다리) 개통으로부터 약 2년 만에 장성군이 제2출렁다리를 정식 개통했다. /장성군 제공

# “두번째 출렁다리 개통...장성 관광시대 열려”

### 다리 중심부 높이 수면 위 2~3m 불과...짜릿한 체험 선사

장성호 관광의 새 시대가 열렸다. 지난 2018년 6월 첫 번째 출렁다리(옐로우 출렁다리) 개통으로부터 약 2년 만에 장성군이 제2출렁다리를 정식 개통했다. 정식 명칭은 네이밍 선정단 회의를 거쳐 '황금빛 출렁다리'로 명명됐다.

군은 지난 1일 오전 장성호 수변길에서 황금빛 출렁다리의 개통식을 가졌다. 개통식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유

두석 장성군수와 차상현 군의회의장을 비롯한 공직자 및 공사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치러졌다.

제1출렁다리를 지나 도보로 약 20분 쯤, 거리를 환산했을 때 1km 정도 수변길을 걸으면 만나게 되는 황금빛 출렁다리는 장성을 융곡리에 위치해 있다.

총 길이는 154m로 제1출렁다리와 동일하며, 폭은 30cm 더 넓다.

다리 양 쪽을 지탱하는 주탑이 없는 '무주탑' 방식이 적용돼, 중앙부로 갈수록 수면과 가까워진다. 한 가운데 높이가 수면으로부터 불과 2~3m 정도여서 짜릿한 체험을 만끽하게 해준다.

이날 장성군은 황금빛 출렁다리 개통에 맞춰 옐로우 출렁다리 인근 편의시설인 '넙실장'과 '출렁정'의 영업도 개시했다. 출렁정에는 편의점, 넙실정에는 카페 및 분식점이 들어서 있다.

/장성=유광종 기자 hanjae365@

# 나주 영산동, 쓰레기 투기 예방

나주시 영산동(동장 이춘형)은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로고라이트'(로고젝트)를 지역 곳곳에 설치, 폐척한 거리 조성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

영산동은 관내 쓰레기 상습 무단 투기 구역 24개소를 선정,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로고라이트'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로고라이트 설치는 2020년 주민참여예산 건의사업으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로고라이트는 바다나 벽면에 LED(발광다이오드) 불빛을 투사, 특정 문구나 이미지를 송출하는 경관조명장치다.

아간 시간 대 식별이 어려운 현수막·표지판 시각적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홍보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가 늦은 밤이나 새벽에 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색상과 이미지(글자)가 눈에 잘 띄어 불법투기 예방·근절 홍보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 문구는 △정결한 거리! 영산동의 자랑! △쓰레기 무단투기 안돼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 사용 등으로 오후 6시부터 오전 5시까지 송출된다.

이번 사업을 최초 제안한 김민주 영산동 주민자치위원장은 "고가의 CCTV 장비에 비해 로고라이트는 비용이 저렴하고 홍보 효과가 뛰어나다"고 말했다.

/나주=서성택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